



비나리를 부르는 사물놀이패.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판굿공연.

‘부모은중경’ ‘천수경’ 등이 흡수된 비나리로 시작  
고깔 끝 ‘종이꽃’ 극락 상징, 삼색띠 가사·장삼의 변형



전 세계 수십 여 국가에서 2천 여 차례의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김덕수 사물놀이패. 우리나라 전통의 풍물굿을 현대적인 공연예술로 승화시킨 ‘사물놀이’는 무용음악, 재즈, 동서양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세계속의 한국의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찰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빠짐없이 초청되는 사물놀이와 불교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엄별가락이 풍물에 남아있는 것이나 성덕대왕 신중에 저그마한 장구 그림이 새겨져 있는 것 등을 떠올리면 특정한 연결의 고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사물놀이의 악기와 노래가사, 그리고 복식 문화에 드러난 불교의 흔적을 살펴본다.

팽과리를 연주하는 이광수 선생 사진제공=민족음악원

# 울림속에 인간·자연·우주 담는다

## 사물놀이와 불교

### ▽불전사물의 또다른 형태, ‘사물’

사찰에는 아직저녁으로 불전사물(佛傳四物)의 범음이 울려 퍼진다. 들집승을 일깨우는 법고, 날집승을 제도하는 운판, 수중생물을 깨우치는 목어, 중생들을 법의 세계로 인도하는 범종 등은 원음(圓音)의 소리로 뫄새명들의 마음을 울려 불법의 진리를 전한다.

사물놀이의 ‘사물’이란 어휘는 불음을 전파하는 사물에서 차용한 것이다. 사물놀이에 쓰이는 네 가지 악기는 팽과리·징·장구·북 등으로, 법현 스님(동국대 국악과 교수)은 “이들 네 악기는 불전사물과 형태나 소리는 다르지만 울림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같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악기의 특성상 급속성 악기인 팽과리는 하늘로 뻗어져 올라가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하늘을 상징한다. 무겁고 깊은 소리를 내는 북과 장구는 가죽으로 만든 악기로 땅을 나타낸다. 이를 인간이 다루고 조화시켜 하나의 조화된 경지를 이루는 것은, 불전사물을 두드리면서 생명을 제도시키는 불가의 전통과 닮아있다고 볼 수 있다.

### ▽사물놀이 노래에 경전 내용 그대로 담겨

사물놀이는 ‘비나리’로 시작한다. 비나리는 사물(四物)의 가락 위에 축원과 고사떡담의 내용을 담은 노래를 얹어 부르는 것으로, 사물놀이 마당은 ‘관람객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비나리를 시작하면서 그 막을 올린다.

그렇다면 비나리와 불교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김동원 교수(원광대학교 불교학과)는 “비나리 가사는 ‘부모은중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은중경’은 효를 강조한 경전으로 유교적 전통이 대세였던 조선 시대 당시 일반에 널리 알려진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 같은 경전내용은 절에서 재를 울릴 때 두루 독송되면서 민간에 퍼졌고, 대중들에게 익숙한 민요 선율에 얹어지면서 ‘희심곡’이라는 노래로 급속히 대중화됐다. ‘부모은중경’의 예도 대중에게 널리 보급된 경전들이 비나리에 녹아든 경우는 다양하다.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진철승 씨는 “충청도 경기도



12발 삼모를 돌리는 지은하 선생.

지역을 중심으로 <천수경> 등의 경전이 비나리에 흡수된 흔적이 남아있다”고 말한다.

그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절이 중창될 때면 사당패를 앞세운 걸림승(乞粒僧)들이 희심곡을 빠르게 소화한 비나리를 읊으며 고사떡담을 담당했다. 이들의 유희로 인해 한바탕 대중의 장이 펼쳐지는 가운데 불사를 위한 기금이 조성되기도 했다.

### ▽풍물패 고깔과 삼색띠도 불교에서 파생

풍물패의 복식문화도 불교와 무관하지 않다. 법현 스님은 “조선시대 이전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반드시 고깔을 써야 했다”며 “현재 풍물패들이 쓰는 고깔은 불교적 전통의 하나”라고 말했다. 특히 풍물패 고깔 끝에는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지화(紙花·종이로 만든 꽃을 꽃)를 만들어 꽂는데, 이 역시 불교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사실 가운데 하나다. 이밖에 도 풍물패가 두르는 삼색띠 역시 스님들이 가사 장삼을 수하는 전통에서 파생됐다고 전해진다.

강신재 기자 halswhy@buddhapia.com



삼도농악가락을 연주하는 김덕수 사물놀이패.

## 기교와 개인 기량의 조화

### ■ 사물놀이란

1978년 김용배(쇠), 김덕수(장구), 최태현(북), 이종대(징) 등 젊은 타악 국악인 4명이 네 가지 악기로 선보인 새로운 공연예술장르. 풍물굿을 모태로 만들어졌으나 △마당이 아닌 무대 위에서 △10-15분 연주 시간과 4-6명 정도의 일정 인원을 두고 △반복되는 가락에 의지하기보다는 기교화된 가락과 기량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풍물굿과 차이가 있다.

사물놀이 초기에는 각 지방 풍물굿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정리하는데 그쳤으나, 점차로 비나리/삼도설장구/삼도농악/판굿의 4가지 연주곡목으로 간소화

### 삼도농악 ‘사물놀이의 꽃’

됐다. 비나리는 축원과 고사떡담의 내용을 담은 노래로, 비나리가 시작되면서 공연무대가 열린다. 삼도 설장구 가락은 호남·영남·경기-충청의 장구 명인들의 가락을 한데 모아 새롭게 짠 것으로, 뛰어난 장고재주가 독주를 하던 풍물굿과는 달리 연주자 전원이 독특한 가락과 감각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삼도농악은 각 악기의 개성과 조화가 두드러지는 ‘사물놀이의 꽃’으로, 영남·호남·중부 지역에서 연행하던 농악 가락 중 중요한 가락들을 모아 하나의 연주곡으로 만들었다. 삼도설장고 가락과 삼도농악가락이 없어서 연주하면서 음악적 요소가 극대화되면, 판굿은 상모를 돌리며 여러 가지 대형을 연출하는 등 춤의 시각적 효과가 강한 사물놀이 레파토리다.

## 만해 스님 자료 총망라한 도록 발간

### 만해기념관 전보삼 관장 40년간 수집

광복 60주년을 맞아 만해 한용운 스님의 자료를 한 데 모은 도록이 나왔다.

만해기념관 전보삼 관장은 최근 40년 간 직접 모은 만해 스님 관련 자료를 일대기 순으로 정리한 도록 <만해 한용운>을 발간했다. 만해 스님의 친필 유묵과 사진은 물론 스님과 관련한 내용의 서신, 신문기사, 시비 등이 총망

라된 도록에는 150여 점의 자료 사진과 함께 그 해설까지 정리돼 있다.

도록의 자료들은 만해 스님 생전 삶의 추이에 맞춘 일곱 주제 순으로 배열됐다. ‘지견을 세우다’를 주제로 삼은 첫 번째 파트에서는 만해 스님 생가 사진을 비롯해, 안중근 등 독립투사의 기개를 읊은 만해 스님의 한시 등을 선보인다. 두 번째 주제 ‘불교인으로서의 지향’은 백담사 김연곡 스님이 만해 스님에게 전해준 세계지리서 <영환지락> 등 만해 스님이 출가했던 백담사 자료 중심으로 꾸렸다.

1919년 배포된 ‘독립선언서’, 옥중에서도 독립만을 되뇌었던 만해 스님의 옥중 한시·관련 신문 기사·사진 등이 수록된 ‘3·1운동에 서서’ 주제 부분에서는 독립운동가로서의 만해 스님의 면모가 어김없이 드러난다.

네 번째 주제 ‘침묵의 미학’은 <님의 침묵> 관련 자료로 엮였으며, ‘설중대화’에서는 애국심을 오롯이 녹인 ‘연화도장’ 등의 친필 한시를 비롯해 선(禪)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이 돋보이는 잡지 <선원>의 권두언 자료 등을 공개했다.

십우장에서 보낸 만해 스님의 말원은 <송수첩>, <경허

## 서신·시비 등 150여 사진·해설 정리

당 범어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심우장의 정절’ 주제에서 읽을 수 있으며, 만해 스님 열반 이후의 비석이나 연구 논문 등은 ‘만해가 떠난 그 후’ 주제에서 접할 수 있다.

전보삼 관장은 “이번 도록은 광복 60주기를 기념해 문광부의 지원으로 이뤄지게 됐다”며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 애국지사들의 유묵전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halswhy@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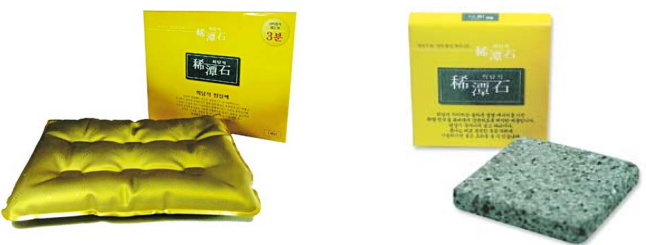


# 을유년 설맞이 | 건강용품 특별기획전

희담보로 구매고객에게 희담석 좌복 무료증정 (2월28일까지)



■ 희담석 허리팩 + 어깨팩 세트 초특가 판매  
· 정가 140,000원 → 88,000원



■ 희담석 찜질팩(신형)  
· 39,800원 → 38,000원  
· 기존제품의 두배인 이상희담석원료 사용

■ 희담석 지킴이 20,000원  
· 크기 : 65 X 65 X 10mm



■ 희담석 방석  
· 198,000원 → 178,200원  
· 크기 : 385mm X 355mm  
· 색상 : 회색, 살구색



■ 희담석 좌복  
· 360,000원 → 298,000원  
· 크기 : 720mm X 390mm  
· 색상 : 회색, 살구색  
· 희담석의 뛰어난 생체 활성 메커니즘을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세요.



■ 스님용 희담 보로(보급형)

· 2,800,000 → 1,980,000



■ 희담 보로(싱글)

· 4,000,000 → 3,200,000

희담 원석 중 원석외선의 진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한 후, 수천시간 자연스럽게 세포의 활력을 높이고 각종 지병 등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스님용 보로는 아담한 사이즈로 스님들의 좁은 수행처에 설치하기 적합합니다. 좌선등으로 활동 시간이 적어 신체대사가 원활하지 못한 스님들의 신체 활성화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보로 사이즈 : (900mm x 1,900mm x 100mm)
- ▶ 의담석사이즈 : (600mm x 1,500mm) → (300mm x 300mm x 16mm) ⇒ 10개 원석의 두께 : 1.6cm
- ▶ 보로의 외피 : 사무드 (고급 인조가죽)
- ▶ 온도 조절기 : 특수 내장형 슬라이드 방식으로 보로 뒷면의 전자파 원천 차단

희담 침대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에너지 파장의 방사능력인데, 옥(玉)등 타 계층의 경우 상온(常溫)에서의 파장은 극히 미미한데 비해, 희담석은 파장의 부파력이 높아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그대로 투과하므로 상온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40°C ~ 60°C의 온도로 쫄쫄도 할 수 있습니다.

- ▶ 보로 사이즈 : (1,000mm x 2,200mm x 100mm)
- ▶ 의담석사이즈 : (700mm x 1,800mm)
- 원석의 두께 : 3cm(300mm x 300mm x 30mm) ⇒ 12개 (100mm x 300mm x 30mm) ⇒ 6개
- ▶ 보로의 외피 : 이타리 천연가죽
- ▶ 온도 조절기 : 특수 내장형 슬라이드 방식으로 보로 뒷면의 전자파 원천 차단

\* 행사기간동안 서울, 경인지역 설치비 무료, 그의 지역 10만원

마하몰에서 알뜰 쇼핑하세요!

1. 인터넷 마하몰에서 삼성, 신한카드 5만원이상 결제시 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2004. 2월 28일까지)
2. 5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불차달력을 드립니다. 10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불보살 캐릭터 액자를 드립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02-732-1520

주문전화